

8 장_인천예총

아하 그렇구나!

10 월 31 일 월요일

경훈이는 오늘도 맨 먼저 미술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마음이 앞서는 듯 달려 들어오는 통에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한 울림이 작은 미술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교실 한가운데에 놓인 책상 위에는 물통과 그림물감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벨벳 토끼인형’이라는 음악 동화를 듣고 난 뒤 그 느낌을 아트만지에 파스텔로 표현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모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훈이는 가장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경훈이는 공부방 친구들과 중에서 왜 자기만 이 미술교실에 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방에서 숙제를 하고 산수문제와 씨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서만 공부방 선생님을 따라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요일 오후가 슬슬 기다려지고, 공부방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너희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상상여행을 떠나본 적 있니?”

상상여행 - 마법의 양탄자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햇볕이 가득한 잔디밭에 마법의 양탄자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뿐히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힘들이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원하는 높이만큼 올라가 보세요.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파란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뭔가 특별한 순간이 떠올랐나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요?

어느새 정재, 수미, 선화도 책상 앞에 마주 앉아 있네요. 친구들과 함께 미술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마법의 양탄자’ 이야기에 따라 상상여행을 떠나봤어요. 그리고는 상상여행 속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처음엔 커다란 4 절 도화지에 뭘 그려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문제없어요.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던 그 순간, 머리 속에 떠오른 걸 마음껏 그리면 되거든요.

11 월 7 일 월요일

오늘도 경훈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칼라믹스와 찰흙이 준비돼 있습니다. 경훈이는 그림도 열심히 그리지만, 만들기라면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찰흙 만들기를 하려면 찰흙판이 필요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훈이는 얼른 찰흙판을 찾아서 여섯 개의 흙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과 미술선생님 뒤편까지 꼼꼼히 챙기고서는 칼라믹스를 손으로 ‘꾸욱’ 눌러봅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게 될 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공부방 선생님이 경훈이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어쩐지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재미있는 미술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여행 - 마법의 상점

여행을 나섰는데, 어쩐지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심심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름한 상점이 하나 있네요.

이름은 ‘마법의 상점’ 이랍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오늘의 상상여행은 ‘마법의 상점’으로 떠나보는 여행입니다. 음악동화가 흘러나오는 동안 경훈이는 ‘마법의 상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멋진 파란색 자동차였습니다. 미술선생님은 마법의 상점에서 들고 온 자동차를 칼라믹스와 찰흙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경훈이는 찰흙으로 자동차의 몸체를 만들고, 그 다음엔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참, 멋진 문도 만들고, 헤드라이트도 붙여야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면서 경훈이는 생각합니다. 이 푸른 자동차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을 태우고 소풍을 가는, 그런 상상에 잠겨 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초록빛 잔디밭길 위로 달리던 자동차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를 때까지 경훈이의 상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11 월 14 일 월요일

미술교실의 문을 열자마자 새콤한 귤 향기가 경훈이를 반겨줍니다. 미술선생님께서 경훈이에게 귤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툭 터지는 귤 알맹이를 입안에서 느끼며 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는데, 도화지에 노란 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순간 경훈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선생님은 괜찮다는 듯 웃어주십니다. 경훈이는 얼른 물감 통에서 귤색 물감을 찾아봅니다. 아마도 오늘 경훈이는 아주 밝고 예쁜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음악동화가 시작됩니다.

상상여행 - 선물

나는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따뜻한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산호 빛 맑은 호수로 들어가 물 아래 돌멩이를 찾아 봅니다.

돌멩이 아래에는 작은 동굴이 있네요.

그곳으로 헤엄쳐 들어가 볼까요?

작은 동굴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네요.

나는 선물을 받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동굴을 빠져 나옵니다.

맑은 호수 위로 몸이 떠오르자 환한 햇살이 반겨줍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11 월 21 일 월요일

미술교실의 책상 위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미술수업이 진행될 모양입니다. 경훈이는 상자 속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부방 선생님께서 양손 가득 들고 오신 피자가 불고기 피자인지, 고구마 피자인지조차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죠. 지금은 책상 위의 상자 속이 더 궁금하니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이들이 지각을 하네요. 경훈이의 마음은 미술교실 입구에 매달린 풍선처럼 뽁뽁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슬슬 심술이 나려고 할 때 지혜와 유정이가 도착합니다.

미술 선생님은 드디어 상자를 열어보입니다. 상자 속에서는 색색의 골판지와 가위, 칼, 풀, 접착제, 글루건, 색종이, 그리고 콜라주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경훈이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의 미술수업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상여행이 무엇이든 틀림없이 재미있을 겁니다.

상상여행 - 비밀의 정원과 집

나는 숲 속을 걷고 있습니다.

숲 속에는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보면 나만의 비밀의 정원이 나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뭔가 비밀스러운 집이라서 선뜻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들어갈까, 아니면 들어가지 말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일까요?

집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을 나와 다시 오솔길을 따라 돌아옵니다.

선생님은 음악동화를 들려주신 다음, 정원이 있는 집을 꾸며보라고 하셨습니다. 커다란 하드보드지와 색색의 골판지가 가득했던 건 집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였네요. 경훈이는 두 팔을 걷어 올리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손을 멈춥니다.

‘어떤 집을 지을까?’

경훈이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이름을 가진 멋진 집을,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경훈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봅니다. 지혜는 벌써부터 노란 골판지를 오리고 있습니다. 유정이는 하드보드지에 초록빛 골판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의 머리 속에는 이미 예쁜 집이 그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경훈이는 친구들의 손놀림을 지켜보면서 멋진 집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경훈이가 지은 집은 이상한 나라의 유머집

선생님: 경훈이는 정원이 아주 멋진 집을 지었구나. 자,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이 집을 소개해 줄까? 여기 있는 이 ‘평안의 쉼터’는 뭐야?

경훈: ‘평안의 쉼터’는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혼자서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음…… 편안하게 쉬게 해 달라고 만들었어요.

선생님: 와, 이 호수도 아주 멋진 걸? 호수 맞지?

경훈: 네, 이 호수는 ‘정령의 호수’예요.

선생님: ‘정령의 호수’라? 누가 살고 있는데?

경훈: 음…… 백조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생물이 모두 살고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럼 이 ‘쉼나무’는 뭐야?

경훈: 그건…… 나무가 겨울에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무가 하는 일로부터 쉬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를 다 털어내고……

선생님: 이파리를 다 털어내고 쉬고 있다? 그럼 너무 쓸쓸하고 외롭지 않니?

경훈: 쓸쓸하고 외롭지만, 나무는 겨울에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음……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름에, 가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선생님: 자, 그럼 경훈이는 이 집 어디에 있어?

경훈: …… ‘평안의 쉼터’에 있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경훈: 다른 사람들은 집 안에 있겠죠.

선생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모여있는데 왜 경훈이만 ‘평안의 쉼터’에서 쉬고 싶어?

경훈: 지치고 힘들어서요……

선생님: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경훈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경훈아, 그럼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응? 사람들이 경훈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경훈: 그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랑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선우가 지은 집은 사냥꾼의 집

선생님: 자, 선우가 지은 집을 함께 보자. 선우야, 이 집의 이름은…… 옳지, 여기 ‘사냥꾼의 집’이라고 돼 있네? 사냥꾼의 집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래?

선우: ……

선생님: 선우야,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

선우: 평범한……사람……

선생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 어떻게 평범한 사람인데?

선우: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

선생님: 아, 그렇구나.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사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사냥꾼이니?

선우: 네, 사냥꾼이에요.

선생님: 그럼 사냥꾼하고 또 누가 살지?

선우: 사냥꾼만 살아요.

선생님: 사냥꾼은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면서 왜 혼자 지내지?

선우: 사람을 안 만나니까……

선생님: 사람을 안 만난다? 왜?

선우: 걱정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사냥꾼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는데?

선우: 사람들이 자기를 놀려서요.

선생님: 사람들이 왜 사냥꾼을 놀리는 거지?

선우: 얼굴이…… 이상해서요.

선생님: 얼굴이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선우: 얼굴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사냥꾼은 혼자 있어요.

선생님: 사냥꾼은 무척 슬프겠구나. 그럼, 사냥꾼은 여기서 혼자서만 살 거야? 계속?

선우: 아뇨, 사냥꾼은 자기를 안 놀리는 사람을 찾아 떠날 거예요.

선생님: 그래? 그럼 사냥꾼이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선우: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가족과 친척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렇구나. 선생님도 사냥꾼이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선우: ……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예총 인천연합회가 인천지역 공부방 아이들 160 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우울증상이 심한 아동 5 명을 선발해서 음악과 명상 그리고 미술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 미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인천 지역 공부방 어린이 중 우울증상이 심한 아동 5 명과 함께 만든 음악, 명상, 미술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아하! 그렇구나’

한국예총인천연합회